

신성장동력 산업생태계 이후 중장기 정책 및 연구 아젠다 발굴

-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산업경제연구센터)

1. 출 장 개 요

- 출장기간 : 2011. 10. 24(월) ~ 2011. 10. 28(금)
- 출장지역 : 미국/ 워싱턴 DC, Fairmont Washington, DC Hotel
- 출 장 자 : 장석인 소장 (산업경제연구센터)

2. 출 장 목 적

- 글로벌인사이트(GS)에서 주최하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컨퍼런스 참가
- 최근 세계경기 부진의 신산업 영향과 아시아경제에 주목하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내년도 이후 세계경제여건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년 이후의 신성장동력 발전의 새로운 여건 및 생태계 관련 현안 및 후속 정책 및 연구 아젠다 발굴

3. 출장 일정

일자	주요 일정
10.24(월)	서울 출발 → 미국/ 워싱턴 DC 도착
10.25(화)	World Economic Outlook Conference 참석
10.26(수)	World Economic Outlook Conference 참석
10.27(목)	귀국(워싱턴 출발)
10.28(금)	한국 도착

4. 복명 내용

(1) 컨퍼런스 개요

- 일시 및 장소: '11. 10. 24(월)~ 28(금), 미국 워싱턴 D.C.
(The Fairmont Washington, D. C.
<http://www.fairmont.com/washington>)
- 개최목적: 지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금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의 충격해소 방안과 위기이후 경제활성화 방향에 대한 논의
- 주최기관: 미국 IHS Global Insight 주최
- 주요 참석자: 비즈니스 리더, 정책입안자, 연구자와 학계인사들이 주로 참석

(2) 컨퍼런스의 구성과 주요 아젠다

- 컨퍼런스는 두 차례의 총회와 8개의 세부 세션으로 구성
 - 개회총회는 IHS Global Insight사의 Chief Economist인 Nariman Benravesch가 총괄차원에서 2012년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폐회총회에서는 이번 컨퍼런스의 논의결과를 종합
 - 컨퍼런스 세부 프로그램 및 주요발표자 리스트는 IHS Global Insight 웹페이지 참조

- 컨퍼런스의 주요 아젠다는 금년 하반기이후 전개되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충격과 2012년 이후 주요 세계경제 관련 다음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논의로 구성
 - 미국과 각국의 정책입안가들은 국가부채를 비롯한 공공부분의 부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 그리스와 다른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 대응과 유럽의 재정위기 극복과정의 긴축재정 프로그램으로부터 어떤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것인가?
 - 글로벌 재정위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압박을 받고 있는 유가의 동향과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무엇인가?
 - 글로벌 금융위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흥시장은 이번 글로벌 재정위기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 특히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과 경착륙이 현실화될 경우 세계경제와 1차산품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 이하에서는 컨퍼런스의 여러 논의 중 본 출장목적과 관련된 내년도 이후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와 향후 신성장동력 발전전략 수립에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글로벌 여건 변화와 향후 산업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의 현안 및 후속 정책과제 발굴차원에서 관련된 논의를 정리

(3) 2012년 세계경제 전망 세션 (개회총회)의 주요 논의 내용

- 향후 글로벌경제는 신흥시장 국가의 성장세가 주도하는 가운데 미국, EU, 일본 등 기존 선진국의 경우 상대적인 성장세 부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3.0%에서 내년에는 2.7%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유럽은 경기 침체에 접어들고 중국 등 신흥국들은 인플레이를 억제하면서 점차 성장기조를 회복하는 등 지역별로 성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
 - 미국과 유럽국가의 경우 2012년 각각 2.9%, 1.6% 성장을 전망하고 일본의 경우 지진 여파로 올해 제로 성장에 그친 후 내년에는 3.6%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경우 현재 성장세가 매우 약하지만 더블딕은 피할 수 있을 정도의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유럽의 경우 이미 상당정도의 침체기 (mild recession)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도 성장가능성은 크지 않은 바 이는 재정적자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가 여기에 더해 인구고령화 등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기 때문
 - 반면, 중국의 경우 최근 물가 상승 등 여러 문제가 없지 않지만 향후 중국경제가 계속 강세를 보여 내년에는 8.5% 성장을 전망하는 한편, 인도는 올해와 내년 8%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유럽의 채무위기는 미국과 세계 경기회복을 위협하는 단일 최대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

- 현재 그리스 사태 때문에 특히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바 향후 유럽 채무위기는 소프트 디폴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향후 채무위기의 극복여부는 그리스가 장기적으로 국가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와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 채무와 관련된 많은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과는 달리 실업률 감소는 정책 과제가 아니며, 오직 인플레이션 억제만을 목적으로 통화정책을 쓸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

○ 결론적으로는 글로벌경제가 일종의 위험지대(danger zone)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향후 미국의 성장세 회복은 재정적자관리와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판단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유럽의 채무위기가 미국과 세계 경기회복을 위협하는 단일 최대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여부가 향후 유로존과 세계경제의 회복세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결론

- 향후 신흥시장국가들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일정기간 세계경제를 뒷받침하겠지만 이들 국가들의 향후 성장세도 유로존과 미국의 경기침체와 중국의 경착륙이 이어질 경우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

(4) 신성장동력 발전전략 수립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새로운 글로벌 여건 변화 내용

< 인도네시아 경제의 부상 >

- 향후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는 당분간 중국과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시장국가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IHS 글로벌 인사이트 컨퍼런스에서는 최근 인도네시아의 부상에 특히 주목
 - 인도네시아는 자원수출주도 경제로 중국과 인도 등 주변 신흥시장 국가들이 빠른 경제 성장세를 유지할 경우 그로 인한 최대의 수혜국일 뿐 아니라 현재 인구가 2억4,000만에 달해 인구기준으로 세계 4대 국가로 중산층과 중산층의 수요증가가 기대
 - 최근 인도네시아 경제의 부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바 이는 주로 천연가스(연간 3TCF 생산, 165 TCF 매장량 보유), 석탄(세계 2위 생산국), 팜오일(세계 최대 수출국), 주석(세계 2위 생산국), 니켈(세계 매장량의 12%), 보오크 사이트(세계 4대 생산국), 등 주요 자원분야의 최대 자원 수출국으로 부상한데 기인
- 미국 등 선진국의 관점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자원이 향후 미래 성장 동력산업 발전에 절대적으로 긴요한바 전략적 조기 진출의 필요성 차원에서 검토 필요성 제기
 - 특히 인도네시아에 이미 진출해 있는 중국 등 아시아지역 국가의 기업들이 조기진출의 이점을 누리기 전에 서방국가 기업 역시 지역 거점 확보와 이들 기업과의 밸런스 유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진출 검토 제안

<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과 파급효과 >

- 그동안 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천연가스의 일종인 'Shale 가스(혈암가스)', 샌드오일(sand oil) 또는 타이트오일(tight oil), 심해유전 (deep water field) 등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으면서 글로벌 에너지산업의 판도변화를 가져 올

주요 변수로 부상

- 혈암가스는 암반층에 분포하는 천연가스로 지금까지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돼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시추기술의 발달과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개발 비용이 낮아지고 수요도 증가하자 주요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천연가스의 일종
-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원의 발굴이 활발해지게 된 주된 이유는 중국과 인도와 같은 신흥시장국가의 부상에 따른 석유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석유와 천연가스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한편 전통적 원유 및 shale gas, sand oil, tight oil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의 발굴 및 시추 및 채굴기술이 크게 발전했기 때문임.
- 현재 캐나다의 경우 “tar sand”, 미국의 경우 “shale gas” 또는 “tight oil”, 브라질의 경우 심해의 “pre-salt oil”, 베네주엘라의 경우 ‘extra-heavy oil’ 로 알려진 새로운 에너지원의 거대한 매장량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에너지산업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판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원의 매장지가 미국본토 내륙지방,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 발견됨에 따라 기존 서방세계의 중동 석유의존도와 화석원료의 물류흐름이 크게 변화될 것을 암시하고 그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도 예상
- 특히 이러한 전통적인 화석원료분야의 기술발전에 따른 채굴비용의 하락과 그에 따른 유가 및 천연가스의 가격하락은 최근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을 전제로 추진 중인 핵심 신성장동력 분야인 신재생에너지원 확대(renewable energy source)전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확대와 관련기술의 발전은 현행 신 성장동력의 하나로 추진 중인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신성장동력의 산업화전략이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심해유전 시추선, 천연가스 운반선박 등 조선산업분야에 새로운 성장유망분야로 등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

(5) 산업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차원의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

<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

-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주장은 지난해까지도 연 평균 10%의 성장을 하던 중국경제가 높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정책과 세계경제의 침체 탓으로 성장률이 급락하면서 제기
- 특히 중국당국이 당초 관리목표(4%)를 훨씬 웃돌고 있는 최근 물가상승세를 잡기위해 대출규제와 은행지급준비율 인상, 금리인상 등 시중에 풀린 자금흐름에 제약을 가하면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활동이 부진해지면서 성장률도 둔화되고 있다는 주장
- 일각에서는 중국의 물가상승률이 내년 상반기까지 5.5%대를 유지해 내년 성장률이 8.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경착륙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제기
- IHS 글로벌인사이드는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됐지만 경착륙 위험은 크지 않다고 반박, 오히려 연착륙의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전망
- 이는 최근 중국 내에서 공격적인 통화정책이 성장률은 끌어내렸지

만 성장은 여전히 강건하며 중국은 올해 9%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

- 또한 12.5차 계획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일부 과열분야의 투자조정과 신성장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투자율 급락과 같은 사태를 조정해 나갈 가능성이 크고 내수와 소비자 수요가 상당수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 그러나 중국당국의 물가상승 억제차원의 긴축적 금융정책이 민간부분의 투자분위기를 위축시키는 한편, 미국과 EU의 경기회복세부진이 본격화되고 2009년 이후 신용확대와 부동산 경기과열이 은행부실로 이어질 경우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
- 실제로 세계경제 전망 시나리오의 하나로 미국의 정책실패, 유로존의 재정 및 부채위기, 중국의 경착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
- 이러한 중국의 경착륙 여부는 향후 국내 신성장동력 발전전략과 녹색성장 관련 전략이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성장동력과 녹색성장전략과 관련된 일종의 위기관리(risk management)전략 차원에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구축해 둘 필요가 있음.

< 최근 태양광산업의 공급과잉과 파급효과1) >

- 국제적으로 태양광 패널 가격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제조사들은 생산용량을 늘리고 있어 가격 하락을 부추겨 중국 제조사들은 솔린드라 등 3개 미국의 태양광 제조사들을 파산으로 몰았다고

1) 이 내용은 IHS Global Insight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니나 컨퍼런스 참석 당시 발간된 미국 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신에너지원 개발 확대 추이와 함께 향후 신성장동력 전략 수립과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임

미 언론들은 비난

- 한편 2022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기로 한 독일 정부의 결정은 태양광 산업에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이는 원전 폐쇄 이후 생길 전력 부족은 태양광이나 풍력이 아닌 석탄과 가스 발전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근거

- 또한 <로이터>통신은 최근 태양광에 대한 독일정부의 보조금 삭감도 가장 큰 태양광 허브였던 독일에서의 태양광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진출의욕을 크게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도
 - 독일의 경우 발전차액제도는 지난해까지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독일을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광 시장으로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지난 2년간 독일 정부는 보조금을 큰 폭으로 삭감했으며, 신규 태양광 설치에 대한 보조금에도 제한을 둠에 따라 현재 독일 태양광 회사들은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무 시간단축으로 대응
 - 독일 태양광 산업 단체 BSW는 지난해 말부터 태양광 산업과 관련된 약 5000개 회사가 폐업하고 2만개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
 - 일부전문가들은 전체 태양광산업 밸류체인에 걸쳐 나타나는 생산과잉으로 향후 많은 회사들이 태양광 산업을 떠날 것으로 전망

- 또한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는 최근 벤처캐피탈과 민간부문에서 소위 녹색기술기반기업에 대한 투자와 파이낸싱에 크게 주저하고 있다고 보도
 -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신성장분야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조세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지급보증 등 정부의 각종 지원자금이 최근 모두 소진되거나, 부양책에 의한 법적근거가 사라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

○ 녹색기술기반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2011년 2분기 11억달러 규모인 것으로 조사된 바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44%나 축소되었으며 거래건수도 동 기간 중 12%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

- 이러한 녹색기술분야에 대한 벤처캐피탈 유입의 감소는 정부지원책의 감소 외에도 최근 shale gas와 같은 저렴한 신에너지원이 풍부해지고, 무엇보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국제협약이 무산되고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진출한 기존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투자메리트가 사라지고 있는데 기인하는 분석

○ 이처럼 스펀인에 이은 태양광산업에 대한 독일의 발전차액보조금 축소와 미국의 소위 녹색기술분야에 대한 벤처자금의 유입 축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 발전전략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발전차액 보전제도나 녹색기술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 확대 등의 정부지원에 대해 그 타당성과 지속가능성, 보조금 축소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사전 대응책 마련이 필요